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제 22회 가야금 교수음악회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제 22회 가야금 교수음악회



2019년 5월 13일(월) 7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지음홀

주최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로)

연주곡목

중광지곡 중 상현도드리-하현도드리

정악가야금 성애순 정윤희 송영란 홍윤진 성보나 양금 김한아 장고 이왕재

중광지곡 중 6, 7번째 곡으로 상현도드리는 삼현환입(三絃還入)이라고 한다. 6박자 또는 3박을 둘로 합친 리듬인 도드리장단으로 짜여져 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제1장 9각, 제2장 11각, 제3장 6각, 제4장 9각으로 되어 있으며, 비슷한 선율형이 각 장에서 자주 반복된다. 하현도드리는 하현환입(下絃還入)이라고도 한다. 원래 하현이라는 말은 따로 없었으나 『유예지(遊藝志)』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루한 감을 주는 도드리의 단순한 반복연주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그 전곡(前曲)인 삼현도드리의 2장부터 3장의 제5각까지를 변주한 곡이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가야금 조선옥 장고 이왕재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최옥삼(1905-1956,장흥)이 가야금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 (1856-1919,영암)에게 배워 함동정월(1917-1994,강진)에게 전한 가야금산조이다. 1980년 국가지정 문화재 제 23호로 지정되었고 함동정월이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이 산조는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늦은 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독창성과 예술성을 지니면서 가락의 짜임새가 좋고 치밀하여 구성미가 돋보이고, 정확한 성음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위사위

작곡 이해식 25현가야금 성보나

‘시나위’와 ‘춤사위’를 각각 줄여서 곡 제목을 붙인 것이다.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하여 역동적인 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변화 없는 빠른 하나의 템포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원래 가야금의 전통 주법인 왼손의 농현, 전성, 눌러서 여음 처리 등이 많이 사용됨으로 하여 음악적 표현 또한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곡이라 하겠다.

25현가야금과 대금을 위한 ‘메나리’

작곡 박범훈 25현가야금 조선옥 대금 박상후 장고 이왕재

25현가야금과 대금을 위한 ‘메나리’는 본래 일본 악기인 샤쿠하찌와 고토를 위해 작곡된 박범훈의 1993년 작품이다. 메나리란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에 전승되어온 토속 민요조를 가리키는 고유어인데, 작곡자는 이 작품에서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 등 메나리조로 된 민요를 곡의 주선율로 활용하면서 곡명을 그대로 ‘메나리’라고 하였다. 다양한 변형박자를 활용하며 민요에 내재된 생활의 흥취를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아리진도

작곡 김계옥 25현가야금 이예랑

진도아리랑을 모티브로 만든 25현금 독주 곡으로. 25현금의 다양한 주법과 기존에 없던 타악기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마치 가야금으로 재주를 부리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엇모리. 세마치. 단모리. 휘모리 등 여러 가지 장단의 변화를 주어 가야금의 전통맛을 살리는 한편 신나고 경쾌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25현금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곡이라고 평가된다.

17현가야금을 위한 ‘단모리’ 3중주

작곡 김영재 I 정윤희 II 송영란 III 홍윤진 장고 이왕재

이 곡은 서주에 이어 전체 A-E까지의 5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7현이 갖는 특성을 살려 양손을 자주 쓰게 하였고, 가끔 나오는 변조된 계면(界面)은 기존 농현을 사용한다. 전체적 조성(調聲)은 전형적인 5음계이며, 경과적 에피소드를 지나 농악리듬으로 대조를 이루게 했다.

연주자



성애순



정윤희



송영란



조선옥



홍윤진



성보나



이예랑

도움주신분



장고 이왕재



양금 김한아



대금 박상후